

하루를 시작하며



권 주 희
스튜디오126 대표·독립기획자

온기를 상징하는 따스한 계절 봄, 제주는 유의미한 행사로 가득하다. 특히 4월은 영등할망이 섬에 머무르는 동안 한 해의 무사를 기원하는 곳을 마을 곳곳에서 준비하고, 차가운 역사를 애도하는 추모의 물결도 이어진다. 연이어 맞이하는 가정의 달 5월은 ‘존재(存在)’와 ‘부재(不在)’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며 비단 가족만이 아닌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부모, 형제, 자녀, 스승에게 안부를 묻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시간이기도

옆으로 누운 말들

하다.
1993년 UN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자는 취지로 ‘세계 가정의 날’을 지정했다. 이것은 어린이날을 비롯해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다.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세계 가정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세계 가정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했다. 당시 산업화, 정보화, 도시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형태나 의미도 변모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도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캠페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운명공동체로 가족을 인식하는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을 둘러싼 관계에 관한 개념이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월, 배운주 시인의 ‘옆으로 누운 말들’이란 시를 읽고 전시의 제목으로 인용한 적이 있다.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거나 내면으로 숨어든 감정, 우회적인 표현을 상징하고 언어가 주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 깊게 자리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도리를 동시에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가족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애 주기에 따라 맺거나 소멸된 수많은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본다. 가장 익숙하기에 당연할 거라 믿는 감정들, 표현하지 못하고 주저했던 말들, 여러 가지 이유로 전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말들은 늘 자신의 주변에 자리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법이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자신을 이루는 것은 주변을 향한 태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우리는 인생에서 가족을 비롯한 관계에 대해 얼마나 사유하며 살고 있을까. 인간은 존재(存在)를 통해 부재(不在)의 의미를 깨닫기보다, 부재(不在)를 경험함으로써 대상의 소중함을 인지할 때가 많다. 제주의 봄은 관계에 대한 사유를 기반으로 자신이 견지한 태도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한 해의 절반을 향해가는 지금, 나를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과 함께 관계한 이들에게 작은 온기를 내어보자. 옆으로 누혀 두었던 말들을 가지런히 정돈해 계절의 온기를 담아 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다.

사설

변상금 날벼락 맞은 제주시, 소송에 만전을

용담레포츠평원은 제주시민들의 건강한 레저와 여가활동을 위해 1993년 조성됐다.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운동장, 화장실,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공원 맞은편으로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과 공항 비행기 이착륙을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핫 플레이스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토부로부터 공원부지와 게이트볼장을 무상 임대해 시민에게 개방해왔다. 그런데 2011년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제에 봉착했다. 개정된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취득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했다. 제주시는 법이 개정된 줄 모르고 사용료를 내거나 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5년 치 사용료와

가산금을 더해 9억3100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하게 됐다. 결국 제주시는 변상금을 부과한 제주지방행정공청을 상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소송한 근거는 제항청이 ‘신탁보호의 원칙’을 어겼다는 판단에서다. 장기간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지 않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신뢰를 줬서다.
일차적인 책임은 법체계를 제대로 숙지 못한 제주시에 있다. 애초 사용료 면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항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법이 바뀐 줄 모르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2022년 2월 감사에서 적발되고 나서야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액의 변상금을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제주시는 제항청과 주고받은 공문들을 근거 삼아 소송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열린마당

귀농귀촌을 쉽게 하는 방법



부 은 숙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주무관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귀농귀촌 7단계를 안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귀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귀농귀촌 정책지원, 교육과정, 그리고 선배 귀농귀촌인의 의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해야 한다. 가족의 응원과 도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귀농귀촌 정착 과정은 쉽지 않다.

셋째 어디에 정착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귀농귀촌 지역 사람들과 융화나 영농기술에 대한 주변의 도움을 받으려면 연구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주택과 농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나 구매 시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작물이 자라는 시기, 노동력 투입 정도, 필수시설, 농지 규모, 필수기술, 자급희전주기 등 자신의 여건과 적성에 맞는 작물을 선택한다.
여섯째 영농기술 습득해야 한다.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진흥청 농업정보포털에서 주관하는 영농기술을 받으면 더욱 좋다.
마지막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작목이나 경영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실험을 해보아야 한다.

뉴스-in

“도민인식조사, 중립적으로 시행해야”

행정체제 개편 경청회서 제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인식조사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문항을 세분화하는 등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
2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도민경청회에서 한 참가자는 “인식조사 내용을 보면 질문 자체가 ‘공정’ 답변을 유도하도록 질문이 만들어졌다”, “사람 심리가 점진적인 발전을 원하기 때문에 약 60%의 도민들이 ‘개편을 찬성한다’고 응답했을 것인데, 이 결과로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
앞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한 인식조사 결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공무원 59.8%, 도민 61.4%가 ‘찬성’ 입장.강대해기자

제주보건소 방역소독기 대여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모기,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 해충 서식 밀도가 증가하는 5월부터 9월 말까지 ‘하절기’ 방역 소독 사업을 실시.
2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방역 소독을 위해 3개의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주간에는 하수구, 하천, 공원, 정화조 등을 집중 방역 소독하고 야간에는 19개 동과 읍면지역 85개 마을의 주거 방역 소독을 실시할 예정.
이와 함께 제주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역소독기 대여 사업을 잠시 운영해 가정에서도 자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곤 누구나 제주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방문하면 대여가 가능. 전선희기자

중도 포기 슬레이트 철거사업 문제 있다

슬레이트 지붕이 왜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대표적 건축자재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서다. 지붕으로 많이 사용된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처럼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매년 추진되고 있지만 중도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문제의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중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도내에서 추진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총 343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택은 2425건, 비주택 1014건이다. 지붕개량은 255건이 이뤄졌다.
그런데 매년 추진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신청자

가운데 중도 포기도 만만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의 경우 목표량(1680건) 대비 1720건이 신청했지만 424건이 포기했다. 지난해는 목표량 1408건 중 1013건만 지원되는 등 매년 400건 가까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당초 목표량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중도에 포기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해 우려된다. 특히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비 부담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붕개량비가 300만~400만원이 소요되면서 아예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만큼 가구당 지원액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석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만큼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배려가 아쉽다.

부 고

고씨종문회총본부 濟州 高公 時弘 고문【국가 유공자, 제23대 고씨종문회총본부 회장·제3대 재)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께서 2023년 4월 30일 19시 5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 2023년 5월 3일 (수요일)
- ▶ 발인일시 : 2023년 5월 4일 (목요일) 오전 08시
-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4 빈소
- ▶ 장 지 : 양지공원 → 호국원
- ▶ 연 락 처 : 고씨종문회총본부 사무실 751-0711

고 씨 종 문 회 총 본 부 회 장 고 정 언 재) 탐라종묘문화재단 이사장

부 고

고우철(소방공무원) 아버지 제주 고공 시홍(베드로·前 제주고씨종문회 총본부 회장·향년 85세)께서 서기 2023년 4월 30일 19시 50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2023년 5월 3일(수요일)
- ▶ 발인일시: 2023년 5월 4일(목요일) 오전 8시
-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빈소
- ▶ 장 지: 양지공원→호국원

부 인 좌연선(안나)

아 들 고우철(아오스탕)며느리 김기선(캐티리나)

봉철(스테파노) 이선희

※ 연락처 : 좌연선 010-6789-5244
고우철 010-2656-1236

태양광발전소 건립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5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외2에 따라 발전사업의 내용에 대해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발전소의 명칭
해길1호, 해길2호, 해길3호 태양광발전소 (총3개소)
- 2. 발전소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224, 2225, 2226
- 3. 발전소의 면적
29,895㎡(총면적 40,252㎡)
- 4. 발전사업의 내용
- 설비 용량 : 999.90KW * 3개소
- 사업 개시 예정일 : 2024년 04월 01일
-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개시 후 20년
- 5. 발전사업 허가신청자
(주)해길에너지
- 6. 의견제출 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7일 (7일간)
- 7. 의견제출 방법
e-mail. es62187@naver.com
tel. 070-4139-7594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